

# 에이즈 공포 사라지자 예방활동 약해져 에이즈 재유행

글\_ 최 병 국 · 연합뉴스 국제뉴스부 부장대우  
(울 7월까지 베를린에서 특파원으로 3년 근무)

지난 1983년 6월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죽음의 전염병 - AIDS - 수수께끼의 질병'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독일 유력 언론으로는 처음 에이즈를 본격 취급한 이 기사는 당시 서구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경악을 잘 드러내준다.

이후 각국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퇴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적어도 서구에선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은 사라졌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서구 언론엔 에이즈가 아프리카 등 빈곤국가에서 창궐하는 질병 정도로나 투영됐다.

그러나 지난 7월~8월 독일의 주요 신문 방송들은 자국의 에이즈 실태와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격감했던 독일의 에이즈 신규 감염인이 2002년 이래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 때문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은 1천928명. 전년 대비 6% 늘어난 것이다. 이웃 스위스에서도 1996년 이후 신규 감염인 동률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높고 있다. 2002년 신규 감염인은 792명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36.3%나 늘었다. 전염병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에이즈뿐 아니라 매독과 임질 등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다른 질환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 서유럽에서 에이즈가 다시 확산되는 이유... 에이즈 경각심 약화와 콘돔사용률 저하

왜 서유럽에서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그 원인으로 우선 ▲이웃 동구권의 매매춘 산업 번창 ▲동남아 등에서 독일 남성들의 섹스관광 만연 ▲동성애의 확산 ▲사후피임약이 나온 이후 콘돔 사용감소 등이 꼽힌다.

스위스 보건부는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 약화와 매체의 무관심 ▲예방 조치를 귀찮아하는 이른바 '예방 피로감' 증가 ▲치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독일 언론은 이에 대해 한 마디로 "1980년대의 에이즈 충격이 이미 잊혀져 가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

에이즈 감염인 돕기 단체인 독일 에이즈 힐페(DAH)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은퇴한 의사 베른하르트 비니크 씨는, 아직 에이즈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증상 악화를 완화하는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에이즈 사망자 수가 90년대 중반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독일에서만 매년 700~800명, 매일 2명 꼴로 죽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예방교육센터(BZgA)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독일에서 발견된 감염인 수는 모두 약 6만5천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약 2만 명이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여성은 약 4분의 1이며, 대부분이 남자다. 특히 근년에 증가하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80% 이상이 성접촉에 의한 것이다. 또 동성애자들, 그중에서도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MSM)이 압도적으로 많다.

엘리자베트 포트 BZgA 소장은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각심 해이, 특히 20대 중반 이하 청소년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KI 조사에 따르면 개개인들이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행동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예컨대 2000년의 경우 45세 이하 독신생활자의 78%가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콘돔을 사용했다. 2003년엔 그 비율이 73%로 떨어졌다. 특히 파트너 교체나 하룻밤 상대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콘돔 사용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1983년 6월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죽음의 전염병 - AIDS - 수수께끼의 질병'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독일 유력 언론으로는 처음 에이즈를 본격 취급한 이 기사는 당시 서구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경악을 잘 드러내준다.

### 국가·사회의 지원으로 에이즈 위험이 여전히 낮은 국가

물론 독일 등 서유럽의 인구 대비 신규 감염인수, 발생자 대비 사망자 수 등은 세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와 사회가 에이즈 감염 예방 활동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이고 감염인이나 발생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재정적 지원 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온 덕분이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두 축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 한 축은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BZgA와 16개주의 관련 기관이다. 다른 한 축에는 DAH를 비롯한 에이즈 감염인 자조단체와 도움단체들이 있다. 이밖에 의사와 약사 등 보건분야 전문인뿐 아니라 교사조직이나 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활동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다.

BZgA는 스스로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즈 예방활동이며, 에이즈 예방 교육 캠페인은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보건 캠페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민간단체들과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그간 독일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감염자와 비감염자 간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BZgA는 강조한다.

이들은 인쇄매체와 방송,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에이즈에 대해 계몽하는 홍보활동을 해왔다. 단독으로 또는 유명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벤트를 벌이는 한편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상담과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나이와 성별, 특

성 등에 따라 목표집단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펴는 것이다. BZgA는 지금까지의 예방활동들을 통해 최소한 3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을 막았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약 4억5천만 유로 이상의 보건비용을 줄인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제3세계의 문제로만 오인하도록 한 언론도 문제

그러나 독일에서 최근 에이즈 신규 감염인이 증가한다는 소식을 계기로 에이즈 대책의 문제점과 타개책이 나자도로 논의되고 있다. 분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른바 '오해와 경각심 해이'에는 언론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근년 들어 에이즈를 제3세계권의 문제로만 생각하게끔 보도해왔으며, 방송국들도 에이즈 예방 무료 공익 방송을 눈에 띄게 줄여왔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들도 재정난을 핑계로 익명 무료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 등 관련 예산을 매년 크게 줄여왔다.

한편 지난 8월4일 BZgA와 민간건강보험협회(PKV)는 이례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골자는 협회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지원비로 매년 340만 유로(약 44억 원)를 센터에 준다는 것이다. 독일 언론은 이에 대해 에이즈 예방과 관련, 획기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는 우선 민간 보험업계가 에이즈 등 질병의 예방 교육·홍보 효과를 공식 인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